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열왕기상 8:1-11

【인도자를 위한 예화】

어려운 일을 당한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창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 또한 악화되어 허리디스크가 도졌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의 사정을 들은 한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었지만, 아내 되는 성도님은 집사님의 권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뿐 아니라 새벽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신기하게도 창업의 길이 열렸고, 남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일이 급속도로 진척되었으며, 구하기 힘든 직원도 성실한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업에 문외한이었지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문 읽기】 열왕기상 8: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봉헌식 과정에서 세 가지 거룩한 전통을 잇습니다. 첫째, 율법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신 12:13~14). 둘째, 다윗의 전통에 따라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다윗과 똑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7:51).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와 예배 중심지로 삼으려 했던 비전(삼하 6:12~16; 대상 15:25~29)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셋째, 출애굽 전통을 상기시키고자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에 거행합니다. 솔로몬 통치 4년 2월(시브월)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11년 8월(불월)에 끝나고 성전 기구 공사도 마무리되었지만, 솔로몬은 곧바로 성전 봉헌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초막절(출 23:16; 레 23:33~44)에 맞춰 12년 7월(에다님월)에 드립니다. 성전 건축 시기를 언급할 때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6:1)이 되었다고 기록한 까닭은 바로 430년 만의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성전 건축 후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긴 것은 무엇인가요?(1~2절)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깁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메어 옮깁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 움직입니다. 솔로몬과 장로들과 각 지파 지도자들이 ‘예배 중심’ 비전에 동참합니다(1절). 언약궤를 옮긴 시기는 성전 완공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는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2절). 4절의 ‘회막, 성막’은 다윗의 성막이 아니라 광야 시대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의 참사(삼하 6:1~15,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아서 옷사가 죽은 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율법에 따라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3~4절).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은 형식(구색)만 갖춘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반영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적용과 나눔 I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공동체의 하나 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모임, 공감하는 대화, 취미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하나 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예배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이룰 때, 공동체가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견실해집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공동체는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예배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고민하는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모든 변화의 근간입니다.

관찰과 묵상 II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어디에 두었나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6, 9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둡니다(6절).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합니다(7~8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인 십계명(출 25:16; 신 10:3~5)이 있습니다(9절). 사실, 언약궤에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민 17:1~11)와 만나 향아리(출 16:33~34)도 있었습니다. 돌판 외에 이 두 가지는 언약궤 ‘안’이 아니라 ‘앞’에 있었을 수도 있고(9:3~4), 아니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를 미신적으로 신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두 돌판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성소의 안쪽인 거룩한 곳에 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입니다. 언약궤가 제자리에 위치하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늘의 뽀뽀한 구름으로 나타납니다(10절).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제사장들은 그 상황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11절). 이는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나타난 현상과 같습니다(출 40:34~35).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II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의 행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선한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이 선한 행실을 이끈다는 종교개혁의 ‘Sola Fide’(오직 믿음) 사상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행동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와 십계명이 위치하듯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면제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며 어린이와 타국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했습니다(신 31:9~13).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이유 중 하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초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